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삼천포대교에서 새해아침을



정해년 새해아침, 청정해역 한려수도의 중심지이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삼천포 대교에서 첫 일출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였다.

축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은 새해 소망을 빌었으며, '사천시가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함께 빌었다.

이번 축제에는 새해 축하메시지, '희망의 북' 33번 타고(打鼓), '소망 촛불 밝히기', '소망연 날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특히 올해는 600년만에 찾아온 '금 돼지 띠 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 재물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는 '희망 황금 돼지 나누기' 행사도 가져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진사산업단지 완전 분양 대체 공단 조성 시급

지난해 12월15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그동안 투자 상담을 통해 투자를 확정된 2개 기업 대표와 투자 협약을 가졌다.

이날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투자를 위해 투자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은 함안에서 열교환기와 발전용 설비를 생산하는 범우이엔지(주)(대표 우종인)와 창원에서 항공기 부품 생산하는 (주)울곡(대표 위호철)이다.

투자협약 내용은 범우이엔지(주)는 향후 3년간에 걸쳐 사천 진사단지 2만1800평에 200억원을 투자해 100명을 신규로 고용, 항공용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주)울곡은 향후 5년간에 걸쳐 7600평에 270억원을 투자해 150명을 신규로 고용, 항공기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며, 경남도와 사천시는 최선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에 범우이엔지(주)와 울곡(주)이 마지막으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진사지방산업단지는 산업용지가 총 85만2000평(1단지 55만4000평, 2단지 29만8000평)으로 초기에는 입지여건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남도와 사천시가 200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15만평을 지정해 상용차 제조회사인 스웨덴의 스카니아 등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총 12개의 외국인 기업이 입주, 외국인 투자 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산업단지가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진사2단지는 SPP해안조선 등 조선관련 업체가 집중 입주함에 따라 지난해 말 진사1·2단

지가 100% 분양이 완료됨으로써 총 50개 업체 1만 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들어 임대단지로 지정된 12만1000평에 항공우주 관련 22개업체의 입주가 결정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한편 진사단지의 완전 분양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입주할 공간용지가 없어 대체공단 조성이 시급하다.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지도시 건설



【시장 신년사 (요지)】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천시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만 시민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8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의 발전을 착실하게 다지는 등 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와 일찬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자치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 등 시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 곳곳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시작되고 산업단지에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 공장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금년은 지난해 개통한 사천대교의 교통망과 상반기 중에 있을 신철사 개청으로 그 어느 해보다 우리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우리 사천이 비전과 희망을 가진 새로운 사천

으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하여 먼저, 첨단산업육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기로 되어있는 22개 항공관련 기업체가 조기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우주 클러스터조성이 앞당겨 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 확대, 노인복지 정책추진,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능력개발,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자원봉사 활성화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테마와 낭만이 있는 문화·관광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와 실안 노을을 배경으로 개최한 세계타악축제, 야경축제, 진어·수산물축제 그리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주제로 한 항공우주엑스포는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만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여름에는 경남민속예술축제, 가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예술축제가 열려 4000여명의 민속예술인들이 우리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자연 친화형 친수공간 확충, 세계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심거리 조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선진교통 문화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고 도심 속 저소득층 불타주거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인재양성과 시민민족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미국교향 학생 참가와 원어민 교사제운영, 지역인재육성 장학금과 급식 식품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직개편과 행정혁신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인이 우리의 최고 고객인 만큼 친절하고 상냥한 자세로 맞이하고 시민감동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정보시대도 실시로 모든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 지역발전을 앞당기려는 지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맞아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시 발전의 기초를 다져온 개발사업들이 완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뜻을 모아 새 사천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사천대교 개통

지역 균형 발전 촉진, 남해안 관광 명물 기대



남해안의 성장 동력이면서 서부 3개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천대교가 착공 7년 9개월만에 개통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사천대교 개통으로 사천만 횡단 운행거리 32km 단축에 따른 서포~용현 간 주행시간이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해 연간 200여명의 물류비 절감과 115억원의 관광수익효과는 물론, 사천만을 경계로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하동, 남해, 사천, 고성지역의 연안 시군을 연결함으로써·남부 경남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남해안 관광자원 벨트화로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천대교는 주변에 입지한 진사1·2지방산업단지와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사남농공단

지 등의 물류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사천공항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과 연계망을 구축해 남해안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사천대교의 개통으로 교통 환경도 좋아졌지만 사천시의 명물로서, 인근 10km 지점에 위치한 창선·삼천포대교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해안관광 투어 등으로 사천대교와 어우러진 사천만 절경을 탐방할 수 있는 남해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뉴스 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방영됩니다

사천시정의 생생한 뉴스를 (주)서경방송 채널 6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수·금요일(오전 10시20분, 오후 4시20분, 밤 11시20분)에 주 3일, 1일 3회 방영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謹賀新年

사천대교가 7년여 공사끝에 지난해 12월18일 개통하였습니다.
사천만을 가로지른 사천대교는
서포와 용현을 잇는 지역화합을 위한 소통의 다리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앞당기는 다리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교 위로 떠오른 정해년 새 해만큼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민, 출향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 최고의 차(茶)생산 단지 운영

대한민국녹색대상, 산림보전분야 은상 수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선도적 역할 인정 받아



시는 곤명면 금성지구 친환경 녹차단지를 최첨단 가공시설과 관리기계를 도입, 세계 최고의 차 생산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시장(김석훈)을 단장으로 생산자단체 대표, 차 산업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최첨단 가공

시설과 생산시설을 갖춘 일본 가고시마현을 방문하여 수입개발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을 다지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한편 차(茶) 수출을 목표로 (주)하마다 관계자와 상담결과 수출기반을 마련했다. 가고시마현은 일본 시즈오카

현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8,390ha)을 갖고 있으며 전체 재배면적의 17%이다. 사천 곤명차단지와 같이 평지 차밭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278억을 보조해 생산기반시설, 재해예방,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규모 확대, 생력화재배, 저비용생산, 브랜드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일본 최고인 '가고시마 차' 산지로 발전했다.

특히 차산지로 주목받는 곳은 가구수 1157호의 지람정(면) 지역으로 경지면적 3120ha 중 1400ha(44.9%)가 녹차단지로 완벽한 재해예방과 생산기반시설이 뒷받침 하고 차밭의 관광자원화에 전향적력을 동원한 시책은 친환경녹차단지 향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의 경쟁은 하동, 보성이나 일본을 목표로 최첨단 가공시설과 기계화, 자동화를 운용한 생산시설, 위탁경영을 통한 규모화로 차생산비를 50% 절감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고 300평당 2000kg을 생산목표를 향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간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차 산업현장을 벤치마킹 결과를 평가한 자리에서 김석훈 부시장은 최첨단 가공, 생산시설 도입도 경쟁력 향상의 주요인이 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사고로 고급인력육성과 구성원의 프로정신, 실천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본으로 차(茶)가공품 수출을 위해 최고의 품질과 위생적 생산, 가공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해 12월13일 산림청과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산림분야의 일꾼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금심과 공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모한 '제1회 대한민국녹색대상'에서 사천시가 산림보전분야에서 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서 사천시는 지난해 경상남도의 산별예방 최우수 시로 기

25ha의 모두베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감하게 시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점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산업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급계약 체결을 맺고 과수농가와 조경수재배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방제 현장에 방치해오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재활용

한계를 처음으로 마련, 산림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05년도에는 예비비 3억 원과 타 사업비 전용 1억5000만 원을 비롯해 총 33억원을 투입해 10만여 본의 재선충 피해목을 완전 제거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크게 저지하였으며,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든 5만여 본에 대하여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제방법을 통하여 방제의 성과를 크게 올렸다.

올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훈증목과 벌채 처리목을 보다 용이하게 수집·파쇄하기 위한 장비인 파쇄기와 집재기를 각각 구입 방제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훈증목과 벌채 처리목을 보다 용이하게 수집·파쇄하기 위한 장비인 파쇄기와 집재기를 각각 구입 방제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훈증목과 벌채 처리목을 보다 용이하게 수집·파쇄하기 위한 장비인 파쇄기와 집재기를 각각 구입 방제에 따른 산림훼손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사천 아카데미’ 교양강좌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교양향상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천아카데미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실시된다. 사천아카데미는 새로운 지식을 더해 옛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와 알리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제15강 1월18일(목) 사천체육관

방송인 전원주의 '영원한 이등 인생은 없다'



방송인 전원주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한 후 동아방송 성우1기와 TBC 텔레트로 데뷔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텔레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SBS 잘살아보세, KBS2 생방송 세상의 아침 등에 출연중이며, 인생을 마라톤·낚시·합창·등산의 4대 원칙으로 비유하는 명 강의를 펼칠 계획이다.

제16강 2월8일(목)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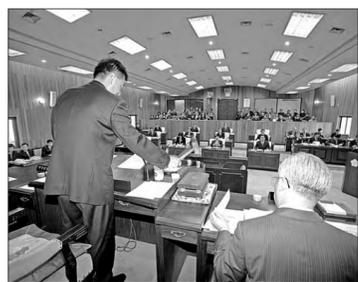
주성민 강사의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란다'



주성민 강사는 이화여자 교육대학원을 졸업 한 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총무와 이화여자 강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상임부회장, 한국여성평생교육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지역사회 학교의 이론과 실제' 등 다수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의 오랜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명 강가의 예상되고 있다.

문의는 총무과 ☎830-4270

새해 살림살이 3313억원 확정



사천시의회(의장 김현철)는 12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환)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의결하여 확정하였다.

이번예결위에서는 사천시장이 제출한 총예산규모 3313억원 중 일반회계는 2993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88억원(10.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0억원(6.0%) 감소한 320억원 규모이며, 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중 제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2억3000만원과 사천강 수중보설치 5억원 등 14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한 것이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1995년도 통합 사천시 출범 당시 1092억원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규모이며, 2001년 김수영 시장 취임당시 1633억원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규모이다.

확정된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692억원이며, 사업예산이 2201억원, 채무상환 28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73억원으로 편성 했고, 이를 세출 과목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678억원, 사회개발비 1202억원, 경제개발비 1040억원, 민방위비 5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를 68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 통합이후 양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신청사 건립, 중앙로 개설사업, 고읍~수정 간 도로개설 등 오랜 숙원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주요 투자사업은 신청사업보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 사업과 곤양·용현 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등 보건 및 환경개선 보건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 그리고 신청사를 구심점으로 하여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이전, 민원편의 도모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인구밀집 지역 읍면동의 옥외부스로 이전 설치 운영한다.

본인 신분 확인만 되면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와 신규도입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사천읍, 곤양면, 동서금동, 발동 동사무소 등 4곳에 각각 1대씩 이전 설치하였다.

삼천포청사 민원실은 신분증 없이도 지문 인식안으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장애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기종으로 설치하여 12월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시

민들의 민원서비스 혜택도 그만큼 편리하게 됐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법원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던 등기부등본도 이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확대 발급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입야대장등본,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설기계



등록원부, 병적증명서 등 모두 21종이다.

시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중심, 시민체감,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국 종별태권도 대회’ 유치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2007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장소가 사천시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 태권도협회(회장 김경길)는 2007년도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의결과 사천시를 2007년도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2007년도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선수, 임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3월경에 삼천포 체육관에서 8일 동안 개최된다.

시는 지난 4월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중등부 경기를 삼천포체육관에서 7일 동안 개최하여 선수, 임원 등 2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7월에는 1000여명이 참가한 제29회 경남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으로써 명실상부한 태권도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내년에 개최될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시에서 유치하게 된 것은 사천시 체육회 임원들의 노력과, 사천시의 스포츠 마케팅의 차질 없는 추진, 사천시민의 따뜻한 정과 친절함 손님맞이, 그리고 청정해역의 맛난 음식문화가 어우러져 이룬 성과로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 전국농구대회, 실업농구연맹전,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 삼천포대교 노을마라톤 등 전국규모의 행사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개발에 있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200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는 바에 따라 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시민여러분께서는 토지특성조사 기간(2007. 1. 2. ~ 2. 28.)중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지적과(☎830-462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사업 무일정

- 기 간 : 2007. 1. 2. ~ 2007. 7. 30.
- 토지특성조사 : 2007. 1. 2. ~ 2. 28.
- 지가산정 및 검증 : 2007.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자가 검증 : 2007. 4. 21. ~ 5. 16.
- 지가결정·공시 : 2007. 5. 31.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자가 검증처리 : 2007. 6. 1. ~ 2007. 7. 30.

개별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천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천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로 적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
-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예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기반시설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의 자료로 활용

2007 새해영농철계교육 일정표

월일	교육장소	인원	교육내용	강사
1. 12	농업기술센터	100	우수농산물	외래강사
1. 16	축동면회의실	60	단감	강남두, 최동근
"	곤양면회의실	60	친환경쌀생산	서용태, 하현욱
"	서포면회의실	60	"	김재완, 이점희
1. 17	사남면회의실	60	친환경쌀생산	서용태, 하현욱
"	농업기술센터	30	양봉	외래강사
1. 18	사천읍회의실	60	친환경쌀생산	김재완, 이점희
"	정동면회의실	100	단감	강남두, 최동근
"	곤양면회의실	70	친환경쌀생산	김재완, 이점희
1. 19	축동면회의실	50	친환경쌀생산	서용태, 하현욱
"	농업기술센터	120	참다래	강남두, 최동근
1. 23	정동면회의실	70	친환경쌀생산	김재완, 이점희
1. 24	농업기술센터	80	고추	외래강사
"	향촌동회의실	50	친환경쌀생산	서용태, 하현욱
1. 25	사천읍회의실	60	단감	강남두, 최동근
"	용현면회의실	60	친환경쌀생산	김재완, 이점희
1. 26	농업기술센터	70	배	외래강사
1. 30	농업기술센터	50	매실	외래강사
1. 31	농업기술센터	130	생활개선	외래강사
2. 1	곤양면사무소	100	시설통과	외래강사
2. 2	농업기술센터	70	친환경인종교육	외래강사
2. 6	농업기술센터	40	버섯	외래강사
2. 8	농업기술센터	80	교두레한우브랜드 참여농가교육	외래강사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등록번호판 교체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체기한 : 2007. 1. 1 ~ 12. 31(1년간)
2. 교체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
3. 교체금액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전액 지원(보조판 제외)
 - 의무교체기한 이전에 교체한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 신청자 부담
 - 신청자가 가로형번호판(520mm×110mm)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4. 신청방법
 -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서 제출 : 도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사전청사)
 - 접수 ⇒ 허가사항 확인 ⇒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첨부하여 번호판재교부 신청 : 차량관리담당(사전,삼천포차량등록민원실)
 - 번호판 제작
 - 주사무소(주소) 읍·면지역 : 합동번호판
 - 주사무소(주소) 동지역 : 영남상사
 - * 문의사항 : 사천시 도로교통과 (☎055-830-8595)

자동차세 선납제도 안내

자동차세의 납세편의 및 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중에 1년분을 선납하면 당해연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전화신청 가능)하여 연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월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신고기간 : 1/16 ~ 1/31
 - 과세기간 : 1/1 ~ 12/31기간의 10%할인
- 1기분 납기 중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신고기간 : 6/16 ~ 6/30
 - 과세기간
 - 1/1 ~ 6/30일까지는 정상과세
 - 7/1 ~ 12/31일까지는(2기분)세액의 10%할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55-830-4297)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지알림방

2007년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분야

- 장애수당
 - 국민기초수급자 : 1-2급 13만 원, 3-6급 3만원
 - 차상위계층 : 1-2급 12만원, 3-6급 3만원
- 장애아동 부양수당
 - 국민기초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 : 1-2급 장애아동 20만원, 3-6급 10만원
 - 차상위 계층으로 만 18세 미만 : 1-2급 장애아동 15만원, 3-6급 10만원
 - * 기존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던

- 장애수당 폐지
- 장애인 분야 신규사업
 - 2007년 신규 사업으로 일반 사업 등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1553만원, 10명, 중증 장애인
 -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사업 : 2160만원, 2명, 장애인
 -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 2241만원, 3명, 장애인

■ 기초생활분야

- 2007년도 최저생계비 인상
 - 2006년도에 비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만5000원, 2인 가구 73만4000원, 4인 가구 120만5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4.2%, 2인 가구는 4.8%, 4인 가구는 3% 각각 인상

■ 노인복지분야

- 장수수당 지급 : 85세 이상 노인 934명에게 매월 3만원 지급, 지원 시기는 만 85세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매월 20일 지급
-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 사업 : 사회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억8798만원의 예산으로 30~50세의 사회 활동이 가능한 50명의 인원을 9개월 동안 노인의 일상을

- 도와 주는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기여
- 실비 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
 - 이용료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중증 노인 15명에게 시설에 입소 할 경우 4967만원이 지원되며,
 - 지원방법으로는 요양시설에는 1인당 매월 22만원을, 전문요양 시설에는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기반 조성
- 노인 돌보미 지원
 - 차상위 중증 노인이 가정파견 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재가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007년도에는 55명의 대상에게 1억2098만원을 지원하여 차상위 중증 노인부양체대의 사회 경제 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
-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인상
 - 경로당 1개소에 지원하는 난방비를 연간 52만원 → 72만원 인상
- 아동·청소년분야
 - 지역 아동 센터 운영 : 기존 6개소 → 7개소에 대하여 매월 200만원씩 제공하여 종합적인 아동복

- 지 서비스 제공
- 아동복지 교사 지원 :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7개소 10명의 인원에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9개월간 지원
- 아동발달 계좌
 - 부모 또는 요보호 아동의 후원자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을 적당하면 국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
 - 이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 등으로 사용
 - 우리 시에서는 81명의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1인당 3만원 지원 예정
-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활동팀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제공
 - 주요 사업은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가출, 학업 중단, 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로 6000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부터 운영 예정
- 도시지역(동 지역) 보육 시설 운영 차량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및 동지

- 역의 자연 녹지지역)에 소재한 보육 시설에 한정 지원하던 차량비를 도시 지역(동지역) 보육 시설에 대하여도 매월 10만원씩 25개소에 대하여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경제 활동 기반 조성
-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 오갈 데 없는 아동을 입양함으로써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양 세대 2세대에 대하여 연간 120만원 지원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장애인의 숙원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소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용현면 소재)
 - 규모
 - 부지면적 : 8909㎡(2.699평)
 - 건축면적 : 1492㎡(452평), 지하 1층, 지상 2층
 - 총사업비 : 30억8900만원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16억3900만원)
 - 운영기간 : 2006. 12. 4 ~
 - 2007년 사업 : 장비보급사업, 주간보호시설, 치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수동정

1. 전국 향우 동문마라톤 3월 4일 삼천포대교에서 함께 뒀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회장 천봉근)는 오는 3월 4일 우리 고향에서 개최되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마라톤대회에 전국 각 지서 애향 활동하는 우리 향우 동문 마라토너들을 초청하여 가슴에 <43-가보자>표찰을 붙이고 함께 이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후 이들에게 '격려연' 을 배풀어 격려하고 감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 재경 서포항우회 '송년의 밤' 행사
 재경 서포항우회(회장 진중현)는 2006년 12월 2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 3층 신라룸에서 병술년을 보내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3. 제43회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장명주 재부 삼천포항우회장
 지난 2006년 11월 30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4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어려운 경제 불황속에서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주)삼주ENG 장명주 대표이사 300만불 수출탑 을 수상했다.
 장사장은 한국 조선공업의 원조격인 대한조선공사 와 그 후신인 한진중공업 설계업무 파트에서 근무했다. 현재 19년째 국내와 해외시장을 상대로 냉동관벨제 조와 선박, 공장, 대학교,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일반 시중 대형식당의 주방기기제조업을 해 오고 있으며 내년 2007년도 매출목표는 170억원이라고 한다.
 재부산 삼천포항우회장으로 작년부터 재임 중인 장명주 사장은 20여년 전부터 재부산 삼천포항우회 일에 참여해 오면서 향우들과 고향을 위해서 일해 왔다.
4. 재경 곤양항우회 '2006년 송년의 밤' 행사
 재경 곤양항우회(회장:김인신)는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시청 옆 프레스센터호텔 슈벨트홀에서 재경 곤양항우들을 위한 '송년의 밤'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 사천시 곤양면에서 올라 온 진삼삼 사천시의회 부의장, 박대정 곤양면장, 김삼백 곤양면 체육회장, 진중현 재경 서포 항우회장 등 150여명의 향우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2부에는 가수공연 과 향우들의 노래자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밤을 보냈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 기획홍보팀

2007년 농업시책 안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①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작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일수 : 60일 (1일 2만8000원)
- 신청절차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

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60일간 이용 - 농가 신청 : 이용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②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1만5000평) 농가의 만 5세 미만 영유아(0~5세 : '00. 3. 1일 이후 출생 아동)가 다음 사실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 시설 (민간시설확인은 제외)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유치원
 - * 아동의 부·모 중 1인이 실질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농지원부 등 확인)
 -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
 - 조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있을 경우
- 농어촌 지역 기준
 - 시의 읍면지역 및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금액(급식비 포함)
 - 연령별 월 지급액
 - 만 0세 : 17만5000원 · 만 1세 : 15만4000원
 - 만 2세 : 12만7000원
 - 만 3~4세 : 사립 7만9000원, 국공립 2만8000원
 - 만 5세 : 국공립 5만6000원, 사립 15만8000원

송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정태언씨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표창을 수상했다.

정태언씨는 지난 2004년 11월 본인자녀 결혼축의금 1000만원으로 신간도서 5000여권을 구입하고, 주위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정동면 송보파인빌아파트(888세대) 내에 송보 마을문고를 설립했으며 2006년 2월 시 예산을 지원 받아 마을문고를 100여평으로 확장하고 도서

1만2000권을 보유한 송보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도서 대여와 더불어 낮 시간대에는 유아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공예, 영화감상실 등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편성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daum 카페에 운영내용을 게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의 공동체 역할을 특목히해 주민의 자기개발 및 독서열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회에 걸쳐 경남새마을문고지도자 연찬회에서 송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성공사례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으며 2006년 10월에는 경상남도 최우수문고로 선정돼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심이 많은 타지역 단체들의 견학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③

- 사업개요
 -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 가정의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5세미만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교육청에서 인허가한 사설학원에 다니는 영유아(미취학, 피아노, 태권도 학원 등)도 해당
- 시장, 군수가 인허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여성농업인이 실질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농지원부등 확인)
- 농어촌 지역 기준
 - 시의 읍면지역 및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금액
 - 0세 ('05.3.1 이후 출생) : 8만7500원
 - 1세('04.3.1 ~ '05.2.28) : 7만7000원
 - 2세 : 6만3500원
 - 3세~4세 : 3만9500원
 - 5세 : 7만9000원

초·중학생 구강건강포스터 공모

-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에 관한 포스터를 공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구강관리의 중요성인식에 대한 계기 마련과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치아보존으로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 공모 작품 내용 및 방법
 - 포스터 주제 : 구강병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양한 내용
 - 참가대상 : 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
 - 제출기간 : 2007년 1월 15일(월)까지 도착
 - 제출처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 보건소 보건관리과
 - 작품규격 : 4절(540mm × 390mm) 도화지 (뒷면에 작품제목, 학교명/학년 반, 성명 기입)
 - 심사발표 및 시상
 - 발표 : 2007. 1. 17
 - 시상내역 : 사천시보건소장
 - 대상 1명
 - / 초등, 중학생 중 1명 : 상장 및 상품권(100,000원 상당)
 - 최우수상 2명
 - / 초등1명, 중학생1명 : 상장 및 상품권(50,000원 상당)
 - 우수상 6명
 - / 초등3명, 중학생3명 : 상장 및 상품권(30,000원 상당)
 - 장려상 6명
 - / 초등3명, 중학생3명 : 상장 및 상품권(20,000원 상당)
 - 기타사항
 - 접수된 모든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사천시보건소에서 관리 함
 - 입상작품(접수작품)은 사천시보건소의 구강보건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함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월은 각종 인·허가나 면허 등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정발전의 중요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07. 1.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나 면허 소지자
 - 납부기한
 - 2007. 1. 16 ~ 1. 31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납부 방법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방문 직접납부
 -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관허사업 제한(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시청 세무과 면허세담당자 ☎(055)830 - 4291
 -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7년도 우리시 소재 단독주택(21,400호)에 대해 2006. 12. 1부터 2007년 3. 13까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산정·검증을 실시합니다.
- 산정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및 국제(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가격공시 전에 오류자료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간(2007. 3.14 ~ 4. 3)내 우리시(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서비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하였습니다.
-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내 용 | 일 정 |
|------------------------|--------------------------|
| (1) 주택특성조사 | 2006.12. 1 ~ 2007. 1. 31 |
| (2) 가격산정 및 검증 | 2007. 2. 1 ~ 3. 13 |
|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 2007. 3. 14 ~ 4. 3 |
| (4)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07. 4. 4 ~ 4. 13 |
|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07. 4. 30 |
| (5) 이의신청 (30일간) | 2007. 4. 30 ~ 5. 30 |
| (6)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 2007. 5. 31 ~ 6. 29 |
| (7)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 2007. 6. 2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055-830-430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만화 '수출 3천억을 달성'



제11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12월2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제1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331,2억59,70만6000원으로 원안 가결되고,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 331,2억59,70만6000원 중 1,4억47,9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6억83,932,000원으로 원안가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 332,9억04,04만3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희 의원등 3인의 원발의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0명 중 3인 찬성, 7인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탁석주의원, 이정희 의원이 시정질문을,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로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승인안,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곤명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신수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백운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희 의원등 3인의 원발의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0명 중 3인 찬성, 7인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탁석주의원, 이정희 의원이 시정질문을,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장은?

【답】서포포장 예정 부지내 평균지가는 임야를 기준으로 평당 평균 1만5000원이며, 전·답·임야 등 전체 48만평에 대한 평균지가는 평당 1만9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며, 시에서 혈값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던 골프장 추진에 따른 주민들이 기대심리로 민원이 제기되어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 등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혈값으로 부지를 매각하라고 종용한 사실은 없었음.

이정희 의원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닌다고 말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사천시와 G.S건설간 토지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G.S건설로부터 받은 자금총액과 상계사용내역 공개 의견은?

【답】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사천시 행정정보 공개업무 편람'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즉,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로 해당되며, 위수탁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업무임.

【문】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과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책은?

【답】바다 오염과 관련하여 해안선 기준 500m 이격하여 골프장이 조성되며, 산지보전을 위하여 전체면적의 24.8%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게 설계함.

재해는 필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며, 교통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연결부 노선확장과 특히, 하수·오수·해수와 관련 피해 대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골프장 조성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조성해 나갈 것임.

【문】서포포장 추진을 철회할 용의는?

【답】증가하는 외국인과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를 찾는 기업바이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증대를 꾀하면서 지역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는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

【다선거구이삼수 의원】

【문】동지역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균형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답】동지역의 문화시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특색화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갈 것임.

【문】향촌동에 유치계획인 '삼호조선'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가?

【답】지난 4월6일 삼호조선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회사 자체에서 지난 8월 용역 발주하여 내년 1월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임. 그동안 농공단지 지정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또한,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내년 1월 말경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2월경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정 질문과 답변요지

【라선거구탁석주 의원】

【문】타 지역에서 향촌동 신 항만으로 운송되어 오는 폐기물 운송차량의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해운항만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가?

【답】삼천포항 인벽 축조와 매립사업공사 착수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 중에 있어 2007년도에 본격적인 준설과 인벽 축조 공사가 진행되면 폐기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 항만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배출입 등록은 해양경찰청이 관장하고 있어 관리권이 없는 시로서는 입출항이 중단될 때까지 현장지도 강화밖에 달리 조치할 방도가 없는 실정임.

【문】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향촌동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

【답】향촌동 일원에 조선소 불룩공장과 수산물 전문 가공단지 등 2개소의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조선소 불룩단지는 지난 4월6일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급년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은 지난 3월16일 우리시와 기장군 오징어 가공조합과 삼호건설 3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음.

【문】남일대 리조트 개발사업의 공사시행 과정에서 향촌동 모레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네 가지 사항 중 사업주와 주관부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한 두 가지 사항(남일대리조트 진입도로 설계변경, 해수욕장 공용주차장 마을에서 관리)에 대해 주민을 위로하고 배려할 용의는 없는가?

【답】진입도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노선이 사업체가 계획하고 있는 건축 지점으로 변경의 어려움이 있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 건은 우리시가 추

진 중인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음.

공용주차장을 모레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2006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된 시행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관리권을 선정하게 됨으로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수의계약 방식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사업시행자도 하여금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위로와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뜻을 전달하겠음.

【문】한국항공산업(주)를 비롯한 항공관련 업체와 또 앞으로 유지되는 업체들과 협의하여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출신학생들이 일정 비율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상호협정을 체결할 의향은 없는가?

【답】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지난 1999년 항공3사 통합으로 아직까지 생산직 사원들의 인력이 많아 2009년까지는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고, S&K항공(주)은 올해 고용한 생산직 사원 40명 중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졸업생 5명을 고용해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정비율의 취업을 보장하는 협정 체결을 시에서 강제할 수 없으나 향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AL을 비롯한 기존 항공업체와 앞으로 입주하게 될 항공관련 업체에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 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취업자 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한국폴리텍항공대학에서도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

【문】골프장 예정부지의 혈값매각 종용에 대하여 이정희 의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다닌다는 것처럼 명예훼손을 했었는데 대한 입

장나누기행사를 관내 외국인 이주여성들과 함께 감장을 담구었으며, 독거노인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100여통의 감장을 나누어 주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 감장나누기 행사와 어려운 이웃을 도우기 위한 사랑 나눔행사는 지금까지의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뜻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회복지지킴이 시 공무원 자체 동아리에서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매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 얻어



공양면 남문리 76-1번지에 거주하는 김미분(여·52세) 씨는 지난 11월30일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일면식도 없는 김광대(남·53세)씨에게 신장을 기증해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현대사회에서 참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봉사정신을 실천했다.

평소에도 끈양면 봉사단체인 '작은사랑 큰 행복회' 회원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으며, 최근 3년 동안 이웃 노인들을 위해 사비로 경로잔치 행사를 주관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며, 범죄피해지원센터사천시부 사법보좌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한 봉사활동이 왕성한 시민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송년회 가져...



지난 12월 6일 사천시 사회복지인들이 "제1회 사천시 사회복지인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사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으로 치러진 금년행사는 2007. 1월 주민통합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민·관에 종사하는 70여명의 사회복지자들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봉록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장, 최효용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사천시지회장, 조성철 경상남도사회복지사업협회장, 오춘자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한 각급 봉사단체의 회장님들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대회

새마을 교통봉사대원 모집

- 모집기간 : 2007. 1. 3~2. 28까지
- 장 소 : 새마을교통봉사대사천시지대
-주 소 : 사천시 신백동246-3번지
-문의 : 055-835-6411, 055-830-4191
- 자격
-관내 거주 20세 이상 남녀
-새마을교통봉사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
- 혜택
-우수 대원 각종 표창기회 부여
-대원 새마을 교육기회 부여

시정박소식

공무원 노조 불우이웃돕기 행사가제...



시 관내 14개 읍·면·동 30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접 방문을 하면서 생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서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정하여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에 선정 대상자를 취합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에서는 강동진 지부장님과 지부 간부들이 함께 대상자 30여명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에서는 사천여성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월8일 삼천포정사 정문에서 사랑의 김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지부장 강동진)에서는 2006년 연말을 보내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미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대상자 선정은 각 읍면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서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선정하여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에 선정 대상자를 취합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에서는 강동진 지부장님과 지부 간부들이 함께 대상자 30여명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이 담아내는 2007년 새해소망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신승수 · 사천을 거주, 시장변영희장, 사천을체육회사무국장



현재 사천시는 20년째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도약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사천대학교가 개교되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는가 하면 창선 · 삼천포대교 또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아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또 진사공단 등 각종공단에는 기업체가 잇따라 유치되는 등 사천지역이 우리나라 항공·우주 클러스터 메카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통합청사가 준공됨으로써 그동안 (구)사천지역과 (구)삼천포지역간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은 600년만에 맞는 '황금돼지'라고 한다.

내년 '황금돼지해'에는 시민 각자 각자가 복을 받고 장수를

누리며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시민의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천시는 서민에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금돼지해' = '사천시민의해'가 될 수 있도록 김수영 시장 등 일선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한다. 덧붙여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서민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새해에는 건강했으면...

유경희 · 선구동거주, 도깨비분식



한 해를 보내며 후회할 시간 보다 다가오는 새해가 반갑다. 2007년은 정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사람들은 은근히 들떠 있다. 나 역시 미리 걸어둔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근거 없는 헛소리라도 좋은 예감을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한 해를 보내며 자심한 대로

살았는지 따져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새해 소망이나 만들어 보기로 했다.

소망이었지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에게겐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다. 살다보면 돈 걱정이 켈로 크지만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을까. 건강해야 행복도 얻는 법이다. 어렵게 살아도 건강하다면 멋진 삶을 산다고 본다. 내 새해소망을 새해 인사 곁들여 본다.

새해엔 복 많이 지어서 건강과 함께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새해 아침에 ♡

배성광 · 선구동 제7통장

정해년 새해에 솟아오르는 맑은 해는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죠.

병술년의 지는해는 지난해 물은 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맞이하겠죠.

버릴것은 다 버리고 꿈고 아름다운 마음위에 하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겠지요.

힘차게 열리는 정해년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사회를 밝게 하고 양심에 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 내야 하리라.

밝은 하늘엔 아름다운 꽃이 피겠지요.

우리들의 의지로 삼천포 앞바다물은 더 강하게 흐르고 어족과 갈매기들은 사랑으로 보호육성해야겠지요.....



인간이 생명을 사랑하듯이 남의 생명도 거룩하게 사랑하고 불행과 고난을 몰아내며 건강한 정해년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창조해야겠지요.....

장애 어린이들 상처받지 않고 밝게 자랐으면...

안태순 · 정동면 거주, 시보명예기자



새해맞이 행사에 다녀 온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가고, 정해년에는 더 큰 소망을 갖

기 위해 다시 삼천포대교로 갑니다.

작년에는 참 바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대회 우승에 두 동실 어깨춤을 쳤고, 수해와 우박 피해 때

는 시민 모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바쁜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국을 끓여 방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면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남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옵니다. 새해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건강한 사천시가 됐으면 합니다.

시민 모두 행복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해년 한해 되십시오.

'7330운동'을 실천하는 한해 되시길...

김시환 · 벌리동 거주, 벌운동체육회장



체육대회는 많은 동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의 장 속에서 종합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공적 대회였습니다. 특히, 입장상을 비롯하여 축구, 씨름 등 주요종목에 대한 우승의 영광은 선수단, 응원단, 그리고 뒤에서 지원해 주신 우리 동민들 덕분임을 마음깊이 인식하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체육대회가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체육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선수와 관련 단체만의 잔치로 인식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체육대회 참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7330'을 아십니까? 이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숫자입니다. '7330'은 일주일(7일)에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트리밍 130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심박수 130 이상이 되는 운동을 하지는 구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이 '7330' 운동을 실천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을 이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체육대회 참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7330'을 아십니까? 이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숫자입니다. '7330'은 일주일(7일)에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 중반 '트리밍 130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심박수 130 이상이 되는 운동을 하지는 구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이 '7330' 운동을 실천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을 이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령화 사회대비한 복지대책을...

오필근 · 용현면 거주, (전)사천문화원장



증가와 노인 복지시설이 결여되는 상대적 노년들의 입지를 낱이 잠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세대 간 생활형태의 차이로 대가족이 핵

가족화 되면서 노인층들이 홀로 사는 어려운 시점에 당도했다. 그 홀로살기를 돕는 일이야말로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마련해주는 노인문제 해결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될 것이다. 복지시설의 확충도 중요 하지만 경로효친 사상의 발양과 함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심도 동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에 의해 초래된 개인문제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는 전체가 책임을 지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① 노인 휴식공간의 확충 ② 양로시설의 입소간소화 ③ 노인복지 전문 인력의 임용배치 ④ 노인인력의 활용 ⑤ 노인병 의료기관의 설립 장려 ⑥ 유료 노인시설의 건립 ⑦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공과금 면제 ⑧ 노인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있어야 한다.

시민의 얼굴에 웃음 가득한 한해가 되길...

김형길 · 곤양면 거주, 곤양면 새마을지도자 총무



만들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어진 봉사활동에 열과 성

을 다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위해 노력을 다하였지만 아쉬움 또한 많이 남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엔 웃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웃을 때 마다 뇌 속에서 엔돌핀과 같은 물에 이로운 물질의 분비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자신

감을 물론 희망도 같이 선물하게 보약이며,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주어진 여건이 불리하고 미흡하더라도 우리 사천시민의 얼굴에 웃음 가득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임호정 · 향촌동 거주, 사회복지법인 삼소원 대표이사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는 진사지방산업단지 외곽인 전동단지 내에 국내·외 우수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사천시의 밝은 미래가 활짝 펼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항공우주산업도시의 메

카로서 웅비의 날개를 펼치며, 더 큰 미래와 희망을 간직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보태져 사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웃음보를 터뜨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화합하는 행정과성장발전의 이면에 있는 우리주민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희망이라는 아름답고 작은 빛이 비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시민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희 망 사 천

김한수 · 곤명면거주, 사천시 다우회 회장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복돼지해여서인지 다른해보다 한층 더 희망으로 마음이 들뜩니다. 우리사천은 충무공이래 항일투쟁의 역사가 서린 곳이며 문화적으로도 조선막사발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도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첨단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과 선박건조 기계생산의 전진기자인 진사공단의 활기찬어

울림은 우리고장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긍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사천시의 깊은 관심과 뜻있는 농민들이 마음을 모아 곤명면 금성리 일대의 평야지에 조성된 동양 최대규모인 녹차단지도 2007년 녹차가공공장의 본격적 가동, 웰빙 녹차의 대량생산으로 주민들의 소득원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며 진양호 수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공명의 발돋움을 한것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천 시민 모두님! 새해에는 사천을 희망도시, 문화도시, 화합의 도시, 친철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가며 정해년 한해 가정과 직장에서 충실하시며 건강 하시옵고 경영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길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생동감 넘치는 서부시장으로 만들자

이영애 · 동동거주, 해양수산시책유공표창



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삼천포 서부시장은 요즘 관광객이 날로 증가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각종 수산물을 찾고 있어 어떤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과 서부시장 주변 지역의 무단주차로 인해 도로가 넓이 마비되고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방문객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삼천포항 서부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 확보 및 인근 유·무로주차장의 효율적 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상인들 서로가 양심을 지켜 후덕한 인심을 나누는 서부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시민모두의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우리 사천시가 한층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끈'의 도시가 되길 기원

박정현 · 남양출신, 세계적 산악인



으로 새해 일출산행을 찾았지만 지리산 보다 백두산 보다 히말라야 보다 평화로운 곳이 어머니의 산 외룡산이다.

아래로는 한려수도의 넓은 바다를 높이로는 798m의 외룡산을 산과 바다를 가까이 낀 사천의 자연은 세계 어느 나라가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다.

산림의 발달은 인간에게 점점 삶의 공간을 축소시키지만 자연의 보전은 점차 인간에게 더 넓은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아름답

다운 산, 아름다운 산행,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위한 자연인으로 진화시킨다.

21세기 아니 영원히 우리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인 삼천포항의 바다와 외룡산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또 하나의 자신이 아닐까?

사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천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억속에 담을 수 있는 '안녕'이란 말보다는 never say good bye가 어울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끈'의 도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 신상소개
사천시 송포동 중촌마을 출신, 8000m 이상 세계 최고봉 8개소 등정

현재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및 전국 유명강사로 활동 중. 저서로는 '끈'이 있음.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고 싶다

박명숙 · 남양출신, 태권도 국가대표



배ijing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드높

이는 쾌거를 이루고 싶다.

● 신상소개
남양초등학교 3년때부터 태권도 수업 시작, 5년때 시대표로 발탁되어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대회, 아시아경기대회등

23회에 걸쳐 발군의 기량을 선보임.



배ijing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드높



우주항공소년포록의 항공이야기 (37)

항공스포츠(Air Sports) - 행글라이딩(Hanggiiding)

행글라이딩(hanggliding)은 행글라이더(hanglider)로 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스포츠라는 장르를 연 대표적인 종목이다. 행글라이더는 기체 아래에 사람이 끈으로 연결된 채 매달려(hang) 비행하게 되어 있어 이를 붙여졌다. 행글라이더는 일반적인 삼각형 날개 형태(class 1)와 비행기 모양에 더 가까운 고정익 형태(class 2)의 두 가지가 있다. 기체는 특수 알루미늄합금 파이프를 골조를 만들고, 그 위에 '다크론'이라는 나일론 천을 씌워 만들어지며, 삼각날개 밑에 직각으로 또 다른 삼각 날개 달려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삼각틀을 '콘트롤 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날개의 중심점에 붙어 있다. 조종사가 이 콘트롤바 속에 앉으면 자세를 조절하며 비행하면서 몸을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기체가 조종된다.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기용 기체의 경우 활공비(L/D)가 20:1에 이르고 있으며 속도는 40~120 km/h까지 낼 수 있다. 활공비가 20:1이라는 것은 100 m 고도에서 출발하면 20배인 2000 m를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의 중심을 이동해주는 방향으로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조립 후 사람의 주력으로 언덕 아래로 달려가면서 양력을 얻어 이륙하고, 두 발로 사뿐히 착륙하기 때문에 인력활공이라고 하기도 한다. 조종은 몸속의 중심을 이동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몸을 전 또는 후로 이동하여 속도조절을 하게 된다. 행글라이더의 역사는 1948년부터 시작된다. 스탠포드대학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비행하면서 몸을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기체가 조종된다.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기용 기체의 경우 활공비(L/D)가 20:1에 이르고 있으며 속도는 40~120 km/h까지 낼 수 있다. 활공비가 20:1이라는 것은 100 m 고도에서 출발하면 20배인 2000 m를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존다리슨은 1963년에 'Ski Wing'이라는 모터보트 견인비행용 날개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이전까지 없던 콘트롤바를 장착했고, 오늘날 알려진 초기 로갈로 타입 행글라이더의 모양을 처음 구현해 냈다. 로갈로의 삼각날개 이론과 디킨슨의 엔지니어링이 결합함으로써 오늘날의 스포츠 행글라이딩이 탄생된 것이다. 1971년 5월 세계 첫 행글라이딩대회인 릴리엔탈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됐고, 1975년에는 국제항공연맹(FAI) 산하에 국제행글라이딩 위원회(CIVL)가 창설됐다. 1976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됐고, 1979년 2회 대회(프랑스)에 이어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이전 재, 이승재 형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이들은 건축용 알루미늄 파이프와 타페타(Taffeta)라는 100% 나일론 천으로 삼각날개를 만들어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험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교수

희망의 다리 사천대교를 오가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오늘 강지바다를 가로지르는 사천대교를 지나가며 이런 말을 실감해 본다. 역사란 자신들이 태어난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라 했다. 사천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7년 만에 완공된 이 다리를 지나간다. 그동안의 상념에 젖어 보는 것도 잠시, 2분도 채 안 걸려 서포방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롭다. 다들 얼마나 기다렸던 개통이었는가. 많은 차량들이 들뜬 기분으로 내 고장 명소를 찾아 나서 여유를 부려 보는 것 같다. 이곳 서포는 사천, 삼천포와 한 지역이지만 바다 건너 오지로 생각될 만큼 거리가 멀어 서로 왕래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다. 거대한 섬 속에 섬이 있는 비포(飛浦)섬. 이곳에는 월등도와 거북섬이 오후가 되면 모세의 기적처럼, 썰물에는 바다가 드러나고 밀물에는 잠기는 곳으로 생태체험 및 갯벌체험과 함께 관광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바다가 주는 자원을 이용해 자연산 바지락과 굴은 이곳 특산물로 삶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환한 발돋움하고 있는 내 지역을 보며 나도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진다. 이 섬들은 서로를 닮아도 않고 닮지도 않는다. 그저 서로를 기대로 의지하며 말없이 배를 띄우고 있다. 전설이 숨쉬고 있는 이 섬은 그래서인지 참 든든하고 신비롭게 느껴진다. 자연의 신비는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는 자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닷길을 따라 걸어본다. 주위의 풍경이 바다 속에 곱게 내려앉아 고요한 호수를 연상케 한다. 그 속엔 하늘과 작은 섬들과 물이 맞닿아 있다. 이곳의 낮은 눈은 옛날에는 바다였다고 하니, 이 사천만이 얼마나 넓고 장대하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온 마음을 뱃사람으로 바꾸는 사람들, 낙원을 꿈꾸는 땅, 지

금여기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변화들이 환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모험엔 고통이라는 댓가가 따른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역경도 즐길 줄 아는 여유로움과, 모자람을 채우는 내일이 있어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미래는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는가. 낙원을 만드는 사람들, 작은 땅을 큰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이 아닌, 큰마음을 가진 공존으로 이루어지는 낙원일 것이다. 하나 된 마음이 있고,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 꿈은 이제 이 사천대교를 오가며 더욱 더 환한 발돋움으로 내딛을 것이다. '햇날엔 배를 타고 다녔지' '제상이 좋아져서 너무 안 좋다. 이제 두 발만 떼면 사천이고 삼천포나 다 바로 내 이웃이제'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들의 주름살이 오늘따라 더 곱게 보인다.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먼 지역에 사는 외지인처럼 생활을 했던 사람들, 7년의 긴 세월을 화기 가득히 지냈을 소망 속에 그곳의 미학과 넉넉한 마음이 서려있다. 지혜리 돌골에서 마주보이는 용현마을과 송포마을, 실안은 바로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인다. 저 건너 새 청사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외왕산은 이 대교를 향해 우뚝 서 위용을 펼치고,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띄웠던 집안한 사천만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 주변의 풍경을 담아 잔잔히 흘러간다. 이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잇는다는 이 거리는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함께 가는 이 사천대교는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요, 희망의 다리이다. /조금련 · 사천항토문화발전연구원

교육비 아우성

요즘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아우성이다.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교육비의 과다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학원 등 사교육비는 불황을 무색케 할 정도로 증가하고 해외유학도 무역수지 적자가 날 만큼 행글라이더의 모양을 처음 구현해 냈다. 로갈로의 삼각날개 이론과 디킨슨의 엔지니어링이 결합함으로써 오늘날의 스포츠 행글라이딩이 탄생된 것이다. 1971년 5월 세계 첫 행글라이딩대회인 릴리엔탈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됐고, 1975년에는 국제항공연맹(FAI) 산하에 국제행글라이딩 위원회(CIVL)가 창설됐다. 1976년 오스트리아에서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됐고, 1979년 2회 대회(프랑스)에 이어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이전 재, 이승재 형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이들은 건축용 알루미늄 파이프와 타페타(Taffeta)라는 100% 나일론 천으로 삼각날개를 만들어 서울 종로구청에서 시험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교수

사리고 있다. 이런 세태에서 제 아무리 유능한 교육수장이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카리스마적인 통치자가 교육비 감소를 위한 철권통치를 해도 별무효과일 것이다. 교육비 문제나 교육열풍은 영원히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약간 완화할 수는 있어도 한국인의 선비정신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교육비는 계속 부모들의 등뼈를 휘게 할 것이고 너라는 교육문제로 시끄러울 것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굵은 직업과 편한 직업 간의 대우상의 격차를 줄이고 고급 실업자 양성sein 대 비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 부모도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기보다는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도록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야 한다. 교육비 아우성은 자식사랑의 산물이고 선비가 되고 싶은 국민의 열망이므로 상당한 세월 동안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 자유민주사회이자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가 한정된 곳에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적은 데 공급은 많으니 경쟁은 불일결처럼 타오를 것이다. 선비우대의식, 직업으로 신분을 평가하는 분위기 근절,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 지양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무슨 일이든 땀 흘리며 일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사고방식을 지녀야 하겠다. /박정도 · 부산 사하구 대대동

'깨끗한 화장실 문화에 앞장서자'

얼마 전 어느 주차장 공용화장실에 간적이 있었다. 작은 시골 주차장이라 별도로 청소를 하는 청소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표하는 아주머니가 차가 뜬 시간을 틈타 청소를 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내가 가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 막상 들어가기도 죄송스러워 청소를 마친 후에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얼마쯤 있다가 지금쯤은 청소를 마칠 시간이다 싶어 화장실에 갔더니 아 불사!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분명 청소를 마친지가 불과 몇 분도 채 되지 않았을 시간인데도 소변기속에는 찌든버린 결과 담배꽂이가 깨끗하게 잘 청소된 변기 속에 버려져 있지 않은가. 어디 그 뿐이랴! 공용화장실은 금연이라 재떨이를 모두 없애고 보니 소변기 위발침대에도 담배를 그냥 비벼서 꺼놓고 간 것도 보였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시골이다 보니 나이든 분들이 가끔씩 실수를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껌까지 씹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 화장실 문화까지 모르는 그런 문외한은 아닐 텐데, 이제 막 청소를 마쳐놓은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것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남이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마구 버려서야 되겠는가. 정말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본다. 언젠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는 일인데 홍콩의 한 보석상은 황금과 보석으로 60억원을 들여 화장실을 꾸며놓고 자기 가게에서 15만원 치만 구입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이런 화장실에 가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 그뿐이랴! 고대 로마에서도 집안 채 값을 웃도는 요통(尿桶)이 있었다는데 그 이유는 오줌을 은그릇에 받아 두었다가 모직이나 피혁을 닦는데 쓰면 좋아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이라 했고 가까운 중국에서도 시동(侍童)으로 하여금 대나무로 만든 변기를 들고 따라 다니게 했었는데 그 변기에 금으로 사치를 한 가치에 따라 신분을 과시 했다고도 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요강을 시집갈 적에 혼수품으로 장만하여 여자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갈 적에 가마 안에 넣어 두고 필요시 사용케 하였다가 결혼 후 시댁에 가서는 방안에 두고도 사용했으며 지금도 큰 산사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글자 그대로 근심을 해결해 주는 곳을 화장실이라 했고 얼마 전 프랑스의 전위작가 '마르세르 뒤샹'의 작품 변기는 무려 20억원에 팔렸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 앞으로는 화장실은 우리 모두가 소변이나 보는 그런 혐오스런 곳이라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 세계의 화장실 문화를 인용해 보았다. 아무튼 밝아오는 정해년부터는 나,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보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정착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민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조복래 · 곤양면 대진리

이민자

애정표현으로 부부간에 금실 다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를 자랑이라도 하는 것인지 애정표현에 매우 인색한 듯하다. 모두가 성격이 무뎠다고 정다운 말이나 친근한 행동을 보여주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연애 때에는 좀 아양을 부리고 애교를 떨다가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무덤덤하고 배우자에 대해 무심한 경우가 많다. 부부는 무촌이라 같이 살 때에는 한없이 가까운 듯하지만 마음이 뒤틀리면 남보다 멀고 심하면 천천지원수처럼 변할 수도 있다. 같이 사는 동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표현을 자주 해 줌으로써 금실을 다

지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훈이 발효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아내에게 '당신을 믿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많이 힘들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난다고 한다. 부부간에도 꾸준히 위안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반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금실은 저절로 두터워진다고 생각된다.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사람이 독심술의 대가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 말이나 행동으로 끊임없이 부부나 가족 간에 애정을 표현하고 생활이나 결혼기념일 등에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주고 받는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시나브로 연출되리라 믿는다.

요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경제난에 따른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결혼이나 이성교제도 경제력을 중시여기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시중에 우스개로 떠도는 유머에도 결혼 상대자 우선순위는 1위가 실생진 교사, 2위는 평범한 교사, 3위는 못생긴 교사라고 한다. 외모나 성격에 따라 수입이 안정적이고 해로워 열려가 없는 교사에 대한 인기를 반영한 것이다. 부부간이 혼하는 이유를 흔히 성격 차이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궁핍이나 부부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부족도 이혼의 불씨를 지피는 요인이다. 연애는 화려한 오해요 결혼은 참담한 이해라는 말도 있고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서 보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고 보라는 말이 있듯이 부부 간이라도 오래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감지된다. 한 핏줄의

가족 간에도 티격태격 거리는데 남남이 만나 항시 의중계 지낼 수는 없다. 다투고 싸우면서 정이 들고 연민이 생긴다. 힘들고 외롭고 고단할 적에 가장 가까이에서 지기고 보듬어 줄 상대는 배우자 밖에 없다. 자식은 크면 남과 같다. 평소 애정표현을 자주하여 믿음과 사랑을 심어야 한다. 부부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감동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므로 애정표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고 백작집도 맞들면 낫다지 않던가?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부부 간에 금실이 오색 무지개로 피어나며 행복의 동지가 포근하게 연출될 것이다. /이옥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사천시 경계종주(境界縱走)(10)



별주부의 무대가 되는 월등도와 거북섬

드디어 '사천땅 테두리를 따라' 사천시 경계종주 마지막 날이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는 11월의 마지막 주말 종주길에 올랐다. 한 주내 가만히 있다가 하필 왜, 주말이면 비가 잘 오는지? 오늘은 조금(小潮)때라 9시나 되어야 물이 난다고 하니 서두를 필요도 없이 마지막해 집을 나섰다. 서포를 지나 굴포마

을 입구에 차순이를 쉬게 한 뒤 마을 안길을 따라 고개를 넘어 내구리 배수지에 도착한다. 배수지에서 곧장 해안선을 따라 서포를 지나 굴포마루가 이어지고 배 한 척이 외롭게 포구를 지키고 있다. 도로를 따라 5분정도 걸으면 창고 앞에 도착하고 길은 여기서 끝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안선으로 내려간다. 조급해라지만 물이 제법 빠졌고

비 내리는 아침의 바다 내음이 상큼하다. 제일 먼저 넘섬이 다가오고 그 뒤로 노루섬 그리고 우무섬이다. 섬은 한 개가 되었다가 두 개가 된다. 서강섬은 노루섬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모퉁이를 도는데 물이 차서 간신히 통과해야 하는 지점도 있다. 굴포마을을 출발한지 1시간 만에 굴포배수문이다. 방조제를 지나 도개비 뚝처럼 특설이 나온 지는 끝을 돌아 나올 때는 벼랑을 타고 산으로 올랐다가 다시 해안으로 내려서야 하는 지점도 있다. 이어서 대형 배수문이다. 방조제와 돌을 지나자 물이 차올라 처음부터 해안선을 잇기 게 곤란했다. 몇차례 접근을 시도해 보았지만 진행이 어려웠다.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안선은 쉽게 나그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굴포로 돌아 나와 중심길 · 고린개골 · 대밭골 · 방아골 · 문터골 · 소금골을 비롯 용의 발가락을 닮은 듯 삐죽삐죽 튀어나온 구렁리 해안을 일일이 답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다뽀폭에 닿았다. 발 뒤편 몇 척의 선박과 넓은 주차장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바다에는 개섬과 소개섬이 물위에 뜨었다. 여기서 이 마을 살고 있는 김영정씨(62세)를 만났다. 그는 굴포장에 관련된 현안과에 기점 일대의 유로늪사태 조성 등 지역발전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했다. 발전과 자연환경문제, 굴양식장 등 주민들의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굴포장은 최대문제다.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 격이다. 발길이 가는 곳까지 다령리 해안을 답사한 뒤 서포면 소재지로 돌아 나와 비토섬으로 향했다. 비토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따르면 이제 는 폐교가 된 비토분교가 있는 포구가 나온다. 수협관광장과 오랜 전통의 한일횡집(최재근,조금련)이 있다. 이 한일횡집은 30여년전 구렁리 주막거리에 있을 때부터 그 당시 4H활동을 하면서 김석관씨(현 사천시의원)와 함께 오랜 인연을 맺은 집이다. 간단하게 술한잔을 마시고 포구로 나갔다. 이마재들이 각기 하우스에 앉아 굴을 까고 있다. 사진도 찍고 굴도 조금 샅다. 서울 사람들의 감정철이라 굴값이 제일 비쌀 때란다. 하루에 20kg는 넘게 잔다고 하니 요즘 같은

면 재미가 있겠다. 이어서 북체 끝이다. 입구에는 토끼가 거북의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가는 모형탑과 전설의 내용이 적혀 있는 동근탑이 있다. 해안으로 내려서면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월등도와 토끼섬 거북섬이 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서포면 비토리와 선창, 자혜리 돌골을 생활터전으로 피 많은 토끼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날 용궁에서 용왕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려 온 거북의 감언이설에 속아 용궁으로 갔던 토끼가 죽을 위기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거북의 등을 타고 용궁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월등도에 당도한 토끼가 달빛에 반사되어 비친 섬에 뛰어 내렸다가 물에 빠져죽어서 섬이 되었다는 토끼섬. 용왕의 문책이 두려운 나머지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북이가 그 자리에 죽어서 된 거북섬. 그리고 남편 토끼를 기다리다 죽어서 목숨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잠시 심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기로 하자.

전라남도 곡성군을 심청의 고장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해도 해주의 입당수가 아닌 심청의 무대가 바로 곡성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곡성군에서는 관광사업단에 심청탐을 구성하여 심청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심청마을을 비롯하여 심청공원과 심청문화센터 · 심청 테마여행지 · 심청캐릭터를 만들고 해마다 심청축제를 거행하고 있다. 심청의 고장이 전남 곡성이라는 황당한(?)이야기에 비한다면 별주부전의 고장 서포는 테마관광단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토섬 일대가 별주부전의 무대로 각광 받을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다시 비토섬을 돌아와서 목 섬으로 행했다. 방조제가 있고 이제 목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었다. 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그칠 줄 모르고 아직 해안선은 끝이 없다. 끝은 날아갈 겨울 해는 더 빨리 저물고 마음이 급했다. 복잡한 해안선을 접어둔 채 차순이를 재촉하여 자혜리 돌골로 달렸다. 여기서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다. 사천대교가 바로 눈앞에 다가 온다. 구포를 거쳐

구우진으로 갔다. 공사 중인 점선도로를 따라 사천대교에 도착했다. 완공은 다된 듯 하나 아직 개통은 미루고 있다. 곧게 단련 출입문을 우회하여 다리에 올랐다. 그리고 사천대교 위를 활차게 달려 용현땅에 도착한다. 이제 여기서 사천땅 테두리를 끝났다. 육지면과 해안공유수면부를 포함하여 150여km를 달려 온 '사천시 경계종주'는 여기서 접는다. 사천대교 건너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천시청 신청사가역시 준공을 앞두고 외왕산 정기가 받아 우뚝 솟았다. 한 무리의 운해가 외왕산을 휘감아 돌고 새삼봉은 용트림을 친다. 바다위로 불빛 나는 고깃배가 오가고, 피어오르는 물가에 새가 울고 펼쳐지는 사천대교는 그림처럼 아름답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고장! 여기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 온 것을 나더 빨리 저물고 마음이 급했다. 복잡한 해안선을 접어둔 채 차순이를 재촉하여 자혜리 돌골로 달렸다. 여기서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다. 사천대교가 바로 눈앞에 다가 온다. 구포를 거쳐

사천읍

1社1村간 姊妹결연 맺는 날



사천읍 두량2리(이장 옥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사천시지사(지사장 오성호)는 2006년 11월21일 오전 11시 마을회관에서 김성민 농협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社1村자매결연식을 가졌다. 먼저 환영사를 한 옥정부이장은 1사1촌을 맺게 중간 가교 역할을 한 농협시지부장에 감사의 인사를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을을 자매 선택해준 한국공항공사 사천시지사 측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으로 자매로서의 깊은 정을 갖고 우리가 생산한 양질의 농산물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호 지사장은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두량 2리 마을과 자매결연이 자랑스러우며, 전국4대 공항공사 지사에 적극 홍보하고 좋은 농산물을 이용하게 됐다고 자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성민 농협시지부장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자매의 관계가 지속될 것을 당부하고 현판식을 기했다. 한국공항공사측에서는 대형 텔레비전과 타올을, 두량 2동에서는 우수농산품인 단감을 전달했고 주민들이 마련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정동면

이웃사랑으로 "웃음꽃"

정동면 자원봉사회원 36명은 지난 12월10일부터 3일간 회원인 권민혁씨가 직접 배배 배추 300포기를 회원들이 직접 수확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전개해 30세대에 전달했다. 14일에는 영광마을 거동불편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집안청소와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7일과 20일에는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사랑의 집고치기 도우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은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 시 청소, 빨래, 가재도구정리 등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실시한 것으로 수급자위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한천인 정작마을인 영광마을에 노령화와 질병으로 직접 음식을 해 먹을 수 없는 노인 8세대가 있음을 접하고, 회원을 6개조로 편성해 매주 금요일 국과 밀반찬을 손수 만들어 전달해 오고 있다.

사남면

문해교실 운영



면사무소 주관으로 2006년도 성인문해사업(한글교실)을 11~12월 2개월간 관내 지역의 비문해자들에게 한글 기초능력 향상을 자기능력 계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해 병동 마을회관에서 무료로 한글교실을 운영했다.

늦게나마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최근에 농촌으로 시집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글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ㄱ(기역), ㄴ(니은)...도 잘 몰랐지만 이제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을 수 있어 한글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으며 2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신 박중보, 최은순 강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내년에도 계속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 워크숍

12월14일 오전 11시에 사남면제자리찾기운동 위원회 주관으로 면사무소 2층에서 사남면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민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추진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난 후 각 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사남면제자리찾기운동의 추진 방향을 기본이 바로 선 사회, 미래지향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 위원들이 솔선수행하는 자세로 시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과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실천을 하기로 결의 했으며, 워크숍 개최 후 제자리찾기운동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하여 병동 사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용현면

청화회 어려운세대 위문금 전달



용현면 청화회(회장 강형정)는 지난 12월 12일 면내 독거노인 및 모자 가정 등 어려운 세대 3세대(선진리 15-2 유애지의 2)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1988년에 발족한 용현면 관내 순수 청년봉사 단체인 청화회는 평소에도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불우이웃돕기, 단단위 경로잔치를 실시해오고 있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는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어려운 세대 위문품 기탁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는 지난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면의 수급권자 중 독거노인 및 모·부자세대 28세대(선진리 1022 조점득 등 28)에 1세대 당 백미 20kg 1포식을 전달했다. '눈누리에 사랑...' 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토지공사는 이외에도 '사랑의 전통철타어보내기' '소년소녀가장에 장학금보내기' 등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축동면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



축동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순분)는 농촌을 지키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2006년 12월 18일 축동면 예동마을 회관에 약 50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푸짐하게 음식을 제공함은 물론, 다정한 말벗이 되어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등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다했다. 한편, 축동면자원봉사협의회는

매일 어려운 이웃 25세대에 대하여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는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곤양면

곤양면 발전위원회 창립총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곤양면 발전위원회 창립총회』가 지난 달 13일 오후 5시 곤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국회의원과 김수영 사천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진삼성 초대 위원장(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오늘이 뜻 깊은 행사를 계기로 전 면민이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같이 해결해 나가자 밝혔다.

게이트볼장 개장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친선도모에 활용될 게이트볼장이 곤양중계펌프장 체육공원에 조성돼 지난달 19일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 80명이 모인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게이트볼은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운동중심으로 이루어져 경기도중 부상위험이 적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양호

진양호 상수원 변 쓰레기 수거작업



12월4일부터 9일간 환경감시원과 주민들 약 40여명을 동원해 상수원 변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마다 상수원인 진양호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오염해소 및 농항기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실시한 이번 작업으로 하천변에 버려진 냉장고, TV, 옷쓰는 가전제품, 소파 등 약 5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쓰레기 수거작업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으며 우리 지역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포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서포면 자매결연 체결



2006년 8월 진천동으로부터 자매결연 요청을 받은지 4개월 만에 서포면과 진천동은 자매결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은 인구 4만이 넘는 신흥 주거단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동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청정 농수산물이 풍부 한 서포면과 상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남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자매의 정을 다지게에 더없이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위해 협력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한 만큼 결연식을 초석으로 더욱더 협력하고 교류를 활발히하여 지역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행사장에는 양 지역 대표자들이 100여명이나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결연식 후에는 아름다운 서포의 구석구석을 차량과 선박을 이용해 관광했다.

등서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야간순찰



지난 12월11일 등서동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김삼균)는 저녁 8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동절기 야간순찰을 실시했다. 실안해안면, 활어관광, 삼천포대교공원 및 동서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이번 순찰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탈선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절기 야간순찰은 12월부터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까지 매주 실시될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

등서동에서는 연말을 맞아 등서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28명을 선발해 12월28일 장학금지급식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학업의욕을 북돋우고 나눔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등서동 통장협의회,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 체육회, 한마을회, 관내업체 등에서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각 2만원씩 총 560만원이 지급됐다.

선구동

등산학교 겨울산행

지난 12월17일 선구동 등산학교(회장 이대수)에서는 드라마 허준 촬영지로 유명한 산청 왕산에 5회차 등반을 가졌다. 40여명의 회원들은 겨울산행장비를 갖추고 등반에 올라 안전한 산행이 됐으며, 흔히 볼 수 없는 눈꽃은 겨울산의 운치를 더했고 하산하면서 들른 유의태 약수터 물맛이 아주 좋아 겨울산행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번 등반에는 약천후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친목도모와 화합의 장이 되어 선구동 등산학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등산학교 참가문의 선구동사무소 ☎ 830-4911)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열려

지난 12월11일 선구동 자원봉사회(회장 이정순)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어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40세대에 김장김치 300포기를 전달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선구동 자원봉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봉사회원 18명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건지고, 양념, 포장하는 일에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하는 진정한 자원봉사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동정결산 및 조직단체 합동월례회 가져



선구동(동장 김길수)은 200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동정업무 결산하고, 동산하 12개 자생조직단체의 활동사항을 상호 비교·분석해 보는 2006년도 송년회를 겸한 동정결산 및 조직단체 합동월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개별 송년회로 인한 경비를 절감하고 한 해의 결산을 통해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마련을 위해 평년과는 달리 조직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단체별로 활동이 우수한 회원 12명에게 동민의 정성을 담은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 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했으며, 동정결산과 조직단체별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등 2006년 결산회의를 한자리에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각 단체 활동사항을 상호 벤치마킹하고 신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선구동은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합동월례회를 향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등서금동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

지난 1일 등서금동 중앙불교사 고객일동(대표자 곽대일)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3만8840원을 등서금동사무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등서금동협의회(회장 김치환)에서는 11월21일 회원 10여명이 동참해 외롭게 홀로 사는 장두선 할머니택(등서금동 526-1)에 낡고 빛바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펼쳤다. 장두선 할머니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했다.

벌운동

주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운동(동장 곽병호)에서는 2007년도에는 '진정한 주민자치'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어려운 계층의 사회복지 확대, 주민숙원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꽃단지 조성 등 힘써 노력 하겠습니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반장 송년회로 새해 각오를 다져 ...

벌운동에서는 지난 12월18일 저녁에 통·반장 200여명과 동직원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벌운동은 38개통 199개반으로 조직되어 우리시에서 통, 반이 가장 많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이날 대상자 중 85%가 참석해 살아 있는 조직임을 확인시켰다.

송년회시 지역개발사업과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자율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벌운동에서 동의 혁신운동의 『나비세븐』의식개혁운동을 중점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했다. 이날 참석한 심희섭 반장은 "그 동안 반장으로 위촉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소속감을 가질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송년회를 통해 여러 통·반장님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반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동에서는 앞으로 199명의 반장들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행정시책을 동정소식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해 2007년 새해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손길 잇따라

연말을 맞아 벌운동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동발전소노동조합(조합장 문영수)에서는 지난 12월7일 백미10포(20kg)를 등서금동사무소에 전달했으며, 벌운동새마을단체는 지난 12월14일 차상위 계층 2세대에 대해 장학금 40만원을 전달했고, 한마을회(회장 이상실)에서도 120만원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했다.

이 외에도 차령근(벌리동 431-6)씨가 매월 백미 10포(10kg)를 기증해오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사천시구푸른봉사회(회장 장미희)에서 10만원을, 주봉모토바 이대표 신도균씨가 10만원, 이너프대표 김점주씨가 5만원, 동원건축설비대표 강봉순씨가 10만원, 벌리주공아파트 101동 주민일동이 5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항촌동

주민자치 자매결연 전국최초 '영호남 교류표창'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유태명)과 사천시(시장 김수영)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증진·유공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 교류표창을 전수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국 최초의 교류표창은 양시·구의 후원으로 지속적인 주민사업의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영호남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펼쳐.....

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윤기)의 지속사업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일환으로 항촌동 1205-2번지 장서분위1 세대에 대해서 도배, 자봉수리, 화장실 수리, 장판교체 등 집안의 불편한 구석구석을 고쳐주고 청소까지 맡김하게 해 주었다. 지난해 12월16일~18일 3일간 실시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보살피 주는 사랑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남양동

미롱매립지 유체발 조성

남양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김연국) 회원 20여명은 지난 12월 15일 미롱매립지에서 유체발을 조성하였다.

미롱매립지는 오랜 기간 유류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였으나 작년 가을부터 유체발 및 매립발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남양동 만들기에 앞장 서 왔으며, 또한 지난 달 유체발을 파종하여 조성해 놓은 유체밭에서 잡석 등을 들어내는 등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였다.

불철 유체밭 개회시에는 용현면 송지리~남양동 미롱마을간 해안로와 연계하여 시민·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8】사천시보

사천이 뜨고 있다 ⑤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서 물류 통로에 있습니다. 어느새 사천시는 ‘부러운 도시’로 경남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어 사천이 뜨고 있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호부터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갑시다.’

곤양, 서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깨끗하고 살기 좋은 사천 건설

사천시 서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연안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곤양·서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으로 배

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해 항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우리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영업 및 생산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가 주택지 주변



서포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정체되어 파리, 모기 등 해충 발생원이 되고, 악취를 발생하여 주거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하수도과 하수처리시설을 정비해 하수의 신속한 배제와 완벽한 처리로 주택지 주변이 청결하고, 도랑과 하천을 비롯한 자연환경이 개선되도록 주거환경이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다.

시는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연안수질 및 깃발을 보

발지역이 2003년 1월에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어, 기존 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선 처리하기 위해 용연면 송지리에 157억원을 투입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처리용량=1,500m³/일) 건설사업을 착공(2006년 8월)하고, 현재 운영중인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처리용량=4만 3,000m³/일)에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48억 사업비를 투입해 고도처리시설과 처리구역 확장사업을 착공(2006년 8월)했다.

시는 수질개선효과의 극대화 와 최근 남해연안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현상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연안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천시 전 지역이 오페스로인한 수질환경오염에서 탈피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금강산 기행기 ③ <8월 21~23일>

가깝고도 먼 봉래산가는 길



Ⅲ. 셋째날(8월 23일 수요일. 날씨: 새벽엔 비, 오후 개다가 다시 비)

숙소에서 짐을 다 챙겨 남으로 떠날 준비, 아침 등산 준비 완료. 금강산의 명물 만물상 등장. 버스로 25분 정도 오르는 고갯길에 벌써 예사롭지 않다. 뒷좌석에 앉았던 일행 들은 멀미 때문에 안색이 누렇다. 내리자마자 화장실 직행.

어제 날씨 정도면 좋았는데 새벽녘에 비가 내리고 잔뜩 흐려 시야가 좋다. 정 선생의 산속 정보를 듣고 일회용 비옷, 장갑도 준비 했었다 일단은 별 어려움 없이 만물상 입구에 발을 디딘다. 외길은 뒤돌아볼 틈도 될 여유도 없이 만원이다. 한 20여분 오를까, 곧바로 철계 계단. 경사가 장난이 아니다. 돌아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중간중간에서 나이 지긋해 보이는 신사분이 내려온다. 고공 공포증이 왔던 모양이지만 내려오는 발걸음은 활기차고 경쾌하다. '고지가 바로 저건데 어서 멈출 수나!' 를 되뇌며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장엄하고 가상하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그 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국에선 경로 우대석에 앉아서 뒷집 지고 있을 나이인데, 우리들보다 빠르고 더 활기차진 모습은 어떻게 된 연유일까? 나 이 많으면 못 올 데라고 누가 단정 지었을까? 봉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 이름이 봉래여서 이곳 금강의 여름 이름이 봉래산이라더니, 너도나도 나는 신비스러운 이 힘은 가히 신령이 살 만한 경지임을 느끼었다.

한 굵이를 지나면 기암이 다 거서고, 또 한 굵이를 돌아들면 발아래 괴석이 우뚝. 갖가지 모양의 금강석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우뚝하다. 이름하여 만물상이다. 못사람들이 쓰는 말은 쇠도 녹이는 힘이 있더라네, 만물상의 이름 속에는 회부연 안개비로 채 본 풍경에 대한 아쉬움과 여운이 맴돈다. 옛사람들이 '화불화 필 부진' (그림으로도 다 못 그리고 글로도 다 못 쓴다)이라 하더니 이 보니 정말임을 알겠다. 어찌나 가파르니 일행 중 1명은 철계단을 붙들고 등진 경치를 못 봐 아쉬움을 지른다. 힐끔힐끔 뒤돌아보던 나도 전열이 꽤 대리가 달달 떨리는 것이다. 앞사람 영덩이만 바라보며 걸다니 이런... 하며 다시 한 번 뒤돌아보니 발아래는 구름이 첩첩이다. 저 구름 걸어본 곳에는 마치 나무꾼과 선녀들이 전설처럼 노닐고 있을 것만 같다. 사람 비행기를 이룬 금강산 일만 이천봉 오천봉쯤에서 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사신을 참 많이도 찍었다. 그래도 남는 것은 사진이란다. 자연과는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사진이라리. 팽팡한 얼굴이 어느덧 물기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해주는 사진이 어느 날부터 날 삼아지는데... 참 짧은 원원니서...

다 내려와서 가랑비가 온다. 우리의 등산 가이드인 정 선생이 처져있어 잠시 기다리니 지리산 마야계곡에서 생긴 안 좋다는 추억을 말씀하시며 "오를 때 보다 늘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했더라"고 하신다. 경험담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는 선생님 오늘따라 참 든든하시다. '나에게 저런 친인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 선생님이 권해서 준비한 비옷을 내 입으니 산행의 마무리까지 산뜻 끝내준다. 등산 완료 시각 11시 30분.

그 유명한 옥류관에서 맛보는 물냉면, 쟁반냉면. 어느 게 물냉면이고 비빔냉면인지 모래 시야가 좋다. 정 선생의 산속 정보를 듣고 일회용 비옷, 장갑도 준비 했었다 일단은 별 어려움 없이 만물상 입구에 발을 디딘다. 외길은 뒤돌아볼 틈도 될 여유도 없이 만원이다. 한 20여분 오를까, 곧바로 철계 계단. 경사가 장난이 아니다. 돌아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중간중간에서 나이 지긋해 보이는 신사분이 내려온다. 고공 공포증이 왔던 모양이지만 내려오는 발걸음은 활기차고 경쾌하다. '고지가 바로 저건데 어서 멈출 수나!' 를 되뇌며 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장엄하고 가상하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그 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국에선 경로 우대석에 앉아서 뒷집 지고 있을 나이인데, 우리들보다 빠르고 더 활기차진 모습은 어떻게 된 연유일까? 나 이 많으면 못 올 데라고 누가 단정 지었을까? 봉에 있다는 상상 속의 산 이름이 봉래여서 이곳 금강의 여름 이름이 봉래산이라더니, 너도나도 나는 신비스러운 이 힘은 가히 신령이 살 만한 경지임을 느끼었다.

가 높은 이들이 이집트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드문드문 천정이 뿔려 있는 허름한 움막 같은 곳에서 가족들과 어울려 자연인으로 사는 삶의 질서 속에는 스트레스나 속박 같은 것이 없으리라. 지나는 길손에게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손을 흔들며 온 가족이 오순도순 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지니왔던 원시 자연의 모습이라리.

이집트나 북한이나 쿠바나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그들이 죽어라 배척하는 자본주의가 무장한 나라들의 자부물이나 동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1인당 북한에 2백 3일 관공에 10만원씩 지불한다고 한다. 개성은 15만원이고.

우연하게도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지하철에서 평안도의 주 출생의 할아버지를 만났다. '북한엔 뭐 허러 가냐면서 정말 굶어죽는 동포를 도와주려면 중국을 통해서 다른 민간 차원으로 직접 도와주어야지 김정은이 좋은 일만 시킨다며 안타까워하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처럼 대책 없는 북한이 정말이기에 어떻게든 중단할 말인가? 참 우리는 오늘도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하나, 정치·경제 논리를 떠나 내리막길 두 번이나 갔다 왔다. 금강산이란 말이 딱 맞는 이곳을 찾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빛나는 삶을 그려보면서 말이다. /이인숙·삼천포여중 교사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7)

구계서원 ①



사천읍 구암리 산4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계서원은 1983년 8월 11일자로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40호로 지정되었고 지정면적은 3,967㎡이다.

이곳 구계서원 내의 구산사에는 학행(學行) 구암 이정(龜岩 李楨 1512~1571) 선생과 성용감덕현(勝翁 金德, 1562~1636) 선생 두 분을 배향하고 있으며 사천읍에서 진주시 금곡면으로 향하는 시·군도 1002호선을 따라 4km쯤 가면 만죽산(萬竹山)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향교(鄕校)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계승된 지방의 공공 교육기관이라 면, 서원은 조선 중기에 보급된 사원(寺院)을 대신하여 사제(書齋)·서당(書堂)·정사(精舍)·선현사(先賢祠) 등을 장려했다. 세종은 특히 이를 장려해 상을 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서원은 재(齋)와 사(祠)의 두 기능을 겸한 것이 아니었다.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은 군안군수로 역임한 바 있음)이 순흥(順興)에서 고려의 학자 안향(安香)·안축(安軸)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듬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서원이었다.

그 후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으며, 1550년(명종 5)에는 이퇴계(李退溪)의 건의로 임금이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액(額)·현판(懸版)을 하사하고 책, 노비, 전결(田結) 등을 주어 장려했다. 이것이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으며 때마침 황폐되어 가는 향교를 대신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서원이 각처에 설치됐다. 그리하여 명종 이전에 설립된 것이 29개, 선조 때는 1백 24개, 숙종 때에는 1도에 8~90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사천의 구계서원(龜溪書院)도 명종 때에 삼사(三司)의 높은 벼슬을 두루 역임한 문신이고 학자인 구암(龜岩) 이정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향사(享祀)하기 위해서 건립했다.

이곳은 구암선생의 생전인 1569년(선조 2)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정관대(正觀臺)와 구암정사를 건립해 '사천 유학'의 본

산으로 삼았던 곳이다. 처음에는 선생께서 별세한 지 40년만인 1611년(광해군 3)에 대관대서제(大觀臺書齋)에서 공부하던 유생(儒生)들이 선생의 유덕을 위해 향리인 만죽산 산자락에 사당을 세움으로써 구산사(龜山祠)와 구산서원(龜山書院)이 창건되었다. 이때 구산서원의 상량문은 향당의 유생인 김윤안(金允安)이 찬하고, 서원 봉안문은 문신이자 재상(宰相)을 지낸 월사이정구(月沙 李廷龜 : 1564~1635)가, 춘추향교문(春秋享教門)은 역시 문신이자 형조판서를 지낸 만전당 홍가신(晩全堂 洪可臣 : 1541~1615)이 지었다.

그 후 1645년(인조 23) 2월에는 구산사원정신도비(院庭神道碑)를 세웠다. 이 신도비는 우의정을 지낸 문정공(文正公) 미수 허목(眉馬 許穆 : 1595~1682)이 비명(碑銘)을 찬서 했다. 이어 1656년(효종 7)에 이가수(李家淳) 등 많은 후학들이 구암선생의 시호(諡號)를 청해 상소를 올렸으나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그 후 1675년(숙종 원년) 9월에 향당의 백이장(白而章) 등이 서원의 현액(懸額)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10월 17일 숙종이 예에서 올린 삼광(三望 : 龜山, 萬竹, 龜溪)에서 구계(龜溪)로 낙점했다.

1676년(숙종 2) 4월에 구계서원에 선액(宣額)할 때 숙종은 "이정(李楨)의 영전에, 국왕은 예조좌랑 류영립(柳英立)을 보내어 제사를 받들어 고하노라..."로 시작하는 내용의 사제문(賜祭文)을 내렸다. 동시에 대관대서제의 유림에서 구산서원을 창건한 지 65년 만에 "구계"로 사액이 되었으므로 사원(祠院)을 중건 수축하고 봉안문을 써서 새 사우에 영위를 모셨다. 따라서 1723년(경종 3)에는 문신으로 대사헌을 지낸 성용감덕현 선생을 연향(聯享)하였다가 1868년(고종 5) 9월, 대원군(大院君)의 집때 전국에서 47개의 사액사원(賜額祠院)을 제외한 비사액서원을 철거할 때 구계서원도 훼손 당했다.

서원이 철폐된 후 오래도록 황폐를 물리지 못하다가 1899년(광무 3)부터 선생이 생전에 수기강학(修己講學)하던 대관대에서 불·가을 두 차례의 석제례를 지냈으며, 대관대는 1901년에 중수

했다. 그 후 1928년에 대관대유계(儒契)의 주관으로 묘우(廟宇)를 재건기로 발의한 후 1931년 봄에 철폐된 서원 중 전국에서 최초로 서원이 복원되었고 이후 1963년 12월에 사각법인 구계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를 해 오다가 1983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이래 여러 차례 보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배치를 보면, 서원 아래 주차장에서 24m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정면 7칸, 측면 1칸, 2층 고진각 지붕으로 된 풍영루(풍영루, 16.16×3.05m)의 외문(外門)을 들어서면 경내에는 유생들의 글방 및 회의장이던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서재(西齋 : 講堂, 不歇堂 11.80×4.0m)와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의 동재(東齋) : 居敬, 明義齋 9.20×3.70m)가 서로 마주해 배치되었고, 다시 계단을 올라서서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의 내삼문인 중기문(重起門 4.60×1.55m)이 있고, 이 중기문을 들어서면 높은 장대석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의 위패를 모신 묘우(廟宇 6.10×3.65m)인 구산사(龜山祠)가 있는데 종건형 48평의 목조와가 5동이 배치되어 있다. 묘우 아래 좌측에는 미수(眉馬) 선생이 비명을 찬서(撰書)한 구산사비(龜山祠碑)와 우측에는 성용(醒翁)선생 및 함의재(涵義齋 崔璣)의 기적비를 세워 놓았다.

구계서원의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1974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비 2,000만원 들여 사당보수, 내삼문 번외, 담장 85m를 개축했고, 1985년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구산사와 내삼문을 보수했다.

그리고 1986년 4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풍영루를 해체 보수하면서 1988년 6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사업비 2,642만원으로 가설공사, 지붕공사, 계단공사를 했고, 2001년 1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8,618만원의 사업비로 풍영루의 연목이상 해체보수를 했으며, 2001년 9월 1일 718만원으로 구암리 36번지 일야 203㎡, 37㎡지 일야 131㎡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였고, 2001년 11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200만원의 사업비로 주변 정비공사를 하했으며, 2002년 11월 6일부터 2003년 3월 10일까지 8,81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자락에 해체보수 및 중기문 연목이상 해체보수를 했고 2002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 사업비 1,870만원으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다.

2003년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73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를 했고,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업비 1,300만원으로 구산사 주위와 풍영루 앞의 노거수 정비작업을 했으며, 2005년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비 6,400만원으로 구산사 산자 이상 해체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를 했다.

구산사에 배향된 구암이정(1512~1571) 선생은 본관이 사천이고, 아버지 처사담(湛)과 어머니 진주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중종 7년(1512) 임신년(壬申年) 12월 계해(癸亥, 23일)에 구암동에서 출생했다.

자는 강이(剛而)이고 호는 구암으로 조상 세거지 구암동에서 탄생해 60세 죽을 때까지 경관직(京官職)과 지방 수령으로 재임했던 약 20년간을 제외하면 60평생을 거의 사천에서 보내면서 그곳에

서 부조(父祖)로부터 가학을 전수받아 기초적인 학문과 경전을 배운 바탕 위에서 당시 사림계(士林系)의 명사(名士)로 적거(謫居)한 구암(奎庵) 송인수(宋麟壽, 1487~1547)에게 성리학을 전수 받고 또 퇴계와 친분이 두터운 판포(灌圃) 어득강(魚得江, 1470~1550)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인근에 살던 남평과 뒷날 영천군수 재임 때 퇴계를 방문해 산배 또는 스승으로 받들게 되면서 사림파의 체질과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마, 심화해 갔으며 또 고장에서 결혼해 아들과 손자를 보고 벼슬을 사양하고 향거(鄕居)할 때나 거상(居喪), 시묘(侍墓) 때는 주책 부근에 서당을 열어 지방자제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 만년에는 정관대(靜觀臺, 뒷날 큰 것으로 큰 것(大)을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大觀臺라 이름을 고침)에 정사(精舍)를 짓고 그곳에서 사우, 문생들과 학문을 강론하다가 그곳에서 죽었고 따라서 산신에 묻히는 등 구암은 사천과 더불어 한 생애를 살았던 전형적인 토성사족(土姓士族)의 한 학자적 관료였다.

구암은 12세 때(중종 18년) 경성도에서 실시한 여름 도시(夏課)에서 장원을 함으로써 고시관을 놀라게 한 것을 보면 어릴 적부터 조부 또는 부친으로부터 가학을 전수받기 기초적인 한문과 시부작문(詩賦作文) 등 과업(科業) 교육을 이수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원 후 홍문연도부(鴻門宴)를 남기기도 하였다.

18세 되던 중종 24년(1529)에 의령 삼씨 가문의 병절귀위호봉위좌부장(秉節尉尉虎衛衛左部將)을 지낸 삼원(沈瑗)의 여식과 혼인했는데 계유생(癸酉生)으로 구암선생보다는 한 살 아래였으며, 이듬해에는 아들 응인(應寅)이 출생했다.

25세 때 문과별시(文科別試)에서 '축망부(祝綱賦)'를 써서 갑과관원으로 급제하여 중종 31년 3월에 서경관 전직(典職)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그해 7월에는 군기시주부(宗6품)를 거쳐 9월에는 사헌부 감찰(정6품)이 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는 선교랑(宗6품)을 거쳐 9월에는 승헌랑(정6품)이 되었고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외교관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넓혔고 12월 귀국할 때 지 왕권(往還) 노정에서 견문한 것을 시로 옮기기도 했다.

그 사이에 경관직 생활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두 번이나 파직된 바도 있었다.

27세 때 형조좌랑을 거쳐 그 이듬해 4월에는 한성부판관으로 제직했고, 중종 3년 6월에는 호조정랑, 9월에는 판관, 이듬해 4월에는 부사직, 6월에는 예조정랑 등을 역임한 뒤 중종 36년 정월(癸亥)에 최초의 외직인 경성도 영천군수(榮川郡守)가 되어 5년의 임기를 다 채웠다. 특히 구암은 영천군수로서 민풍순화, 지방교육 진흥 등 많은 치적을 올렸을 뿐 아니라 퇴계학파의 본고장인 안동권에 수렴으로 재임하면서 그 못 명현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처음 퇴계를 방문, 사제 관계를 맺게 됨으로서 구암과 퇴계와의 관계가 시작됐다. 영천군수 임기를 마치고 명종 1년 2월에 군자감정(宗4품)을 거쳐 동년 5월 정3품에게 승진되고 9월에 평안도 속천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친노(親老)로 인해 명종 1년 9월에 영천의 부근 고을인 선산부사에 제수되었으나 임기를 넘겨준 채 향리로 돌아왔다.

<다음호에 계속>